

축산물 바로 알리기 연구회를 설립하며...



최운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축산물 바로 알리기 연구회 회장,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정회원

세계 곡물파동으로 사료원료 수급 및 가격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칠레, 미국, 캐나다, EU 등 축산강국들과의 잇따른 FTA 타결로 국내 축산업계는 존폐의 위기에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은 2011년 FMD 파동 이후 가격회복이 안되면서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매년 발생하는 AI, 경북 의성에 또다시 발생한 FMD등 재난성 질병은 축산경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업이 수많은 파고를 넘어 오늘과 같은 농촌경제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내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단한 신뢰와 애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 또한 소비자들의 우리 축산물에 대한 신뢰 회복에 있습니다.

그러나 채식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안티-축산’ 운동이 국내외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수많은 안티-축산 사이트, 서적, 매스컴의 잘못된 정보들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아무 제동 없이 ‘축산물 유해론’이 만연하면서 ‘국민 건강 기여’라는 축산물의 최대 가치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신은 우리 축산업의 최대 위기이므로, 이러한 극단적인 유해론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직적인 학술활동을 통해 축산물의 유용성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올바른 가치를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 축산물의 영양적 가치에 대한 과학적 고찰과 검증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와 축산업 종사자와의 신뢰 회복입니다.

우유는 필수 영양소와 생리활성물질이 많이 함유된 완전식품으로서 청소년에게는 성장과 발육을 촉진하며 장년기 및 노년기

의 골다공증 및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유 및 유제품에 함유된 IGF-1(인슐린 유사 성장호르몬)과 성장호르몬이 암세포 성장을 유도할 뿐 아니라, 우유 및 유제품이 혈액의 산성화를 유도하여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식품으로 오도되는 내용이 일부 매스컴(예 : EBS, 우유를 먹는 것에 대하여 ; 2014년 1월 방영)에 경쟁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유의 이들 성분은 살균과정에서 대부분이 분해되며, 남은 성분 조차 소화기내에서 대부분 파괴되고, 장내 흡수율이 매우 낮아 IGF-1와 성장호르몬을 통한 암 발병은 매우 왜곡된 내용이며, 오히려 장기간의 추적 연구결과 우유 및 유제품은 암 발병을 낮추어 준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우유가 산을 생성하는 식품이 아니라는 결과는 이미 자명하게 밝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유 및 유제품내 영양학적 성분과 면역학적 생체 조절 기능의 적절한 조합이 뼈내 미네랄 함량과 골밀도를 증가시켜 골다공증을 예방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단편적이고 편파적인 내용만을 과장하여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단편적인 시각을 버리고, 우유 및 유제품은 성장기에는 어린이들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장년기 이후에는 골다공증 및 각종 성인병 또는 암과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좋은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매일 꾸준한 우유섭취가 이루어지도록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축산인들은 우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기능성 우유 및 다양한 유제품의 연구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육류 또한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과 미네랄 및 비타민의 중요한 공급원으로서 적절한 섭취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채식인들의 주요한 거부표적이 되어왔으며, 이에 따라, 육류 섭취를 극단적으로 기피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적절한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는 근육량과 근력을 향상시키고, 골량과 골밀도의 증진은 물론 대사성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들이 대다수이며, 특히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성 질병의 가능성도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소고기의 경우 마블링에 대한 국내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열량의 사료를 급여함으로써 지방 함량이 높아진 마블링 소고기에 대해 채식인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MBC '육식의 반란'(2013년 방영)과 SBS '옥수수의 습격'(2010년 방영)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곡물사료로 키운 소고기의 높은 지방함량이 동맥경화, 암 등의 성인병을 유발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국내 축산물의 동물성지방량을 적정량 이하로 줄이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강을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농후사료내 옥수수 함량이 높음으로써 야기되는 오메가6 지방산의 과잉섭취를 막는 일이며, 육류의 지방에서 오메가3:오메가6 지방산의 균형 잡힌 비율을 통한 지방산 공급이 오히려 암과 성인병 등 각종 질병을 예

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메가3가 풍부한 조사료 급여비율을 높이거나, 오메가3 함량이 높은 원료사료 및 사료첨가제 개발 연구 또는 사료 가공방법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균형 있는 지방산 조성이 갖추어진 웰빙 축산물을 개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외 수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어 해외시장의 길도 열릴 것입니다.

계란의 경우, 계란의 난백에 식물성 단백질과는 달리 다량의 미량원소들이 함유되어 있으며, 라이소자임(lysozyme)과 오보뮤신(ovomucin)유래 펩타이드 등의 항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한 개의 계란을 섭취하면 고급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물론 혈액 내 항산화 물질 농도의 증가와 더불어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을 낮추고, 계란 내 레시틴(lecithin)에 의하여 콜레스테롤의 흡수가 억제되어 오히려 건강이 좋아진다는 많은 보고도 있습니다.

축산업은 국민의 주식을 공급하는 영양학적 가치를 넘어서서 식량 안보의 가치가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과 사람 환경의 순환이라는 관점에서 비교역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꼭 지켜야 할 필수산업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이러한 축산업에 불신을 갖기까지는 ‘축산물 유해론’에 방관으로 일관하고, 논리에 입각한 건설적 비판도 무시한 학계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축산업의 경쟁력은 소비자의 신뢰입니다.

축산인 스스로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노력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축산인들은 변화하는 축산환경을 인지하고 지금의 “안티-축산”의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축산 반대론자들의 논리를 과학적으로 고찰해야 할 것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축산 전문가는 물론 인체 영양학자, 채식인, 소비자들과의 소통과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당면한 ‘안티-축산’ 문제의 대응책을 찾기 위해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8일 발족된 ‘축산물 바로 알기 연구회’는 심도 있는 학술연구와 토론회를 통해 ‘안티-축산’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인 논거를 마련하고, 활발한 홍보 및 교육 활동으로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함으로써 축산업과 소비자의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안티-축산’ 측의 주장과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러한 위기를 오히려 발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사랑 받는 축산업을 만들어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축산물 바로 알리기 연구회’가 발전하여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조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계, 관계, 생산자 단체, 농협, 축협, 사료업계, 가공업계, 관련 연구소, 기타 관련업계의 깊은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고, 또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지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연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